

김동리 <역마>

[역마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늘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운명

[전체 줄거리]

경상도 전라도 두 지역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화계장터에 유달리 술맛이 좋고 인심이 후하여 이름 날린 '옥화네 주막'이 있었다.

어느 날, 애순이 낚는 '채 장수'는 '계연'을 옥화네 주막에 데려와 그녀에게 맡긴다.

옥화에게 떠돌이 중과 눈이 맞아 낚은 아들 '성기'가 있다. 그의 할머니는 성기의 역마살을 떼고자 절로 보내 중을 시키기도 하고, 옥화는 성기에게 채 장사를 허락하기도 한다. 채전을 마치고 주막으로 돌아온 성기는 계연을 보고 강렬한 호감을 느낀다.

그런데, 어느 날 계연의 머리를 빗겨주던 옥화는 계연의 왼쪽 귓바퀴 위에 있는 사마귀를 보고 놀라 말을 잊지 못한다.

이후 옥화는 잠시 집을 비우는데, 다시 돌아온 그녀는 둘의 사이를 경계한다.

성기가 절에 올라간 사이 채 장수 영감이 돌아왔다. 절에서 막 내려온 성기는 떠날 준비를 하고있는 계연을 보자 온몸에 힘이 풀린다. 계연 역시 눈시울이 붉어지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옥화네 주막을 떠나게 된다.

한동안 성기는 중병에 앓는다. 옥화는 그런 성기에게 계연의 왼쪽 귓바퀴 위 사마귀와 채 장수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계연이 자기의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후, 성기는 차차 기운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에 순응하여 살아가려 한다. 그의 발 앞에는 화갯골, 하동, 구례 쪽으로 세 갈래의 길이 나 있다. 한참 뒤, 성기는 구례를 등지고 하동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내용정리>

[주제] - 운명의 수용과 이를 통한 생애 의지 회복

[배경] : 전라도와 경상도의 접경인 화계장터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성격] : 무속적, 운명적

[특징]

- 운명에 저항하려는 인간과 운명의 대결이 주된 갈등을 이룸.

- 운명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순리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남.

-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장면을 배치함.

[세 갈래 길의 의미]

- 화갯골로 난 길 : 지금까지 성기가 살았던 곳으로 과거의 삶 의미

- 구례로 난 길 : 계연이 떠나간 길로 성기에게는 운명을 거역하는 삶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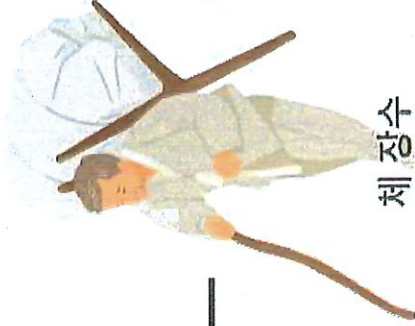
- 하동으로 난 길: 옛장수가 되어 떠돌아가며 살아가게 되는 길로 운명에 순응하는 삶 의미

<역마> 인물관계도



육하엄마
(성기할머니)

하룻밤 놀다 간 남사당에게
육화를 얻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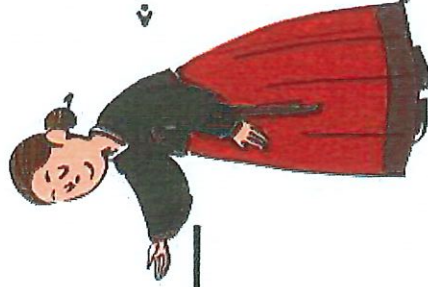
체 장수
(남사당)

서른여섯 해 전 화개 장터에 들음.

?



떠돌이 중



옥화

떠돌이 중으로부터 성기를 낚음.
아들의 역마살 제거기에 힘쓰지만 실패
하고 운명을 받아들이.



이복 자매

계연
(성기의 이모)

목화의 아복동생
성기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를 따라 떠나남.



성기

역마살을 타고난 운명적 인물.
역마살을 극복하지 못하고 운명에 순응해 고향을 떠나남.



한글
한글
한글

역마: 버려 댄을 때죽는다삼은 말
 역이살: 한 살에 생착한이치라고 하기때문에 가까운 것은 양이
 양이: 양을 구한것을 비유하는 것이니 비유하는 것

3217 하은채

나눔을 이끄는 사람
이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사기화장

화재장리(화가 사암전 군)

하루
(성기가 약산소가 되어
떠나는 길)
나운명에 현혹하는 삶
속, 떠돌아다니는 삶

ਅੰਤਰਿਕਸ਼ਿਕਾ ਤੇ ਪ੍ਰਕਾਸ਼ਮਾਤ੍ਰਾ: ਦਿਖਾਨਾ.

$$P_{\mathcal{Y}}|_{\mathcal{Y} \cap \mathcal{X}} = P_{\mathcal{X}}|_{\mathcal{Y} \cap \mathcal{X}}.$$

① 1980년대 후반

② 음성에 저항하려는 이가 vs 음역 : 주위 가등

⑦ 토속적 특성이 잘 드러남 → 화제상처, 역아...등등

→ '나사다'

Relief

→ '나사다'

$\frac{1}{2} \times \frac{1}{2} = \frac{1}{4}$

$$\frac{2}{3} \quad \frac{12}{13} \quad \frac{10}{11} \quad \frac{10}{11}$$

이렇듯 사색의 정을 알기 전에는 영영 이해할 수
없고, 사색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결코 시가라고 할 수 없다.

* १५४० ई. : १६३० ई.

가정/3만원 내장/과일/상|백|공복/가마|하|이내/거

[illegible]

24/21

구분 / 주된 내용

2. 제 장수가 계연을 화개상서미 앞두고 떠남.

3. 생기와 계명은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함.

4. 2주간의 여정의 끝을 반주하여 리코 질바크의 사가들을 보고 들으며 아꼈던 아이들은 항상.

5. श्री गंगा नदीमुळे श्री गंगामध्ये प्रवाहात आले, अशाप्रकारे श्री गंगेला पायले पुढे आले.

6. 선거가 중병을 앓는 계층이 선거의 이모양을 빚어.

<역마> -김동리

3303 김수아

(1) 작품 소개

소설 <역마>는 역마살로 포상되는 **한국적 운명관을 바탕으로 생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형상화한 소설이다. 성기는 역마살을 타고난 인물로, 역마살을 페려는 할머니나 어머니(옥화)가 시키는 대로 중을 하거나 이야기책 장사를 하며 살아간다. 그런 그가 항구적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연과의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녀와의 혈연 때문임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이야기 구성에서 **운명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순리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난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확인하고 이에 **순응함으로써 비로소 삶의 생기를 되찾는 성기의 모습을 통해, 생의 본질과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여기는 작가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2) 작품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순수 소설	성격	무속적, 운명적, 토속적
배경	전라도와 경상도의 절경인 화개 장터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운명(역마살)에 순응하며 사는 삶과 인간성의 구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개장터라는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함. - 역마살이라는 한국적인 소재를 활용해 한국적 운명관을 그림. - 대화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대체로 장황한 문장을 사용하여 서슬함. - 과거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냄. - 정상적이지 못한 가족 관계가 형상화되어 있음. 		

(3) 줄거리

발단	옥화는 아들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려 노력하고, 체 장수 영감이 딸 계연을 옥화에게 맡기고 장사를 떠남.
전개	옥화는 계연을 성기와 맺어 주어 성기가 역마살을 극복하고 정착하게 되기를 바람. 결국 성기와 계연은 서로 사랑하게 됨.
위기	옥화가 계연의 왼쪽 귓바퀴 위에 있는 사마귀를 발견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의심함.
절정	돌아온 체 장수 영감과 이야기를 나눈 옥화는 계연이 자신의 이복동생임을 알게되고, 계연과 성기는 영문도 모른 채 이별함.
결말	계연이 떠난 뒤 성기가 중병을 앓게 되고, 옥화로부터 이별의 이유를 전해 들은 성기가 병에서 회복된 후 역마살에 순응하여 길을 떠남.

(4) 상징적 의미

쌍계사

- 옥화가 성기의 역마살을 풀어주기 위해 중을 시키려고 성기를 데려다 놓은 곳
- 토속적 삶 속에서 정착의 공간을 상징

화개장터

-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오고가는 곳으로 전통사회에서 유랑(떠돌이 삶)을 상징하는 공간
- 대를 잇는 운명의 순환성을 상징하는 장소

세 갈래 길

- 헤어짐과 유랑(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님)의 운명

옛판

- 떠돌이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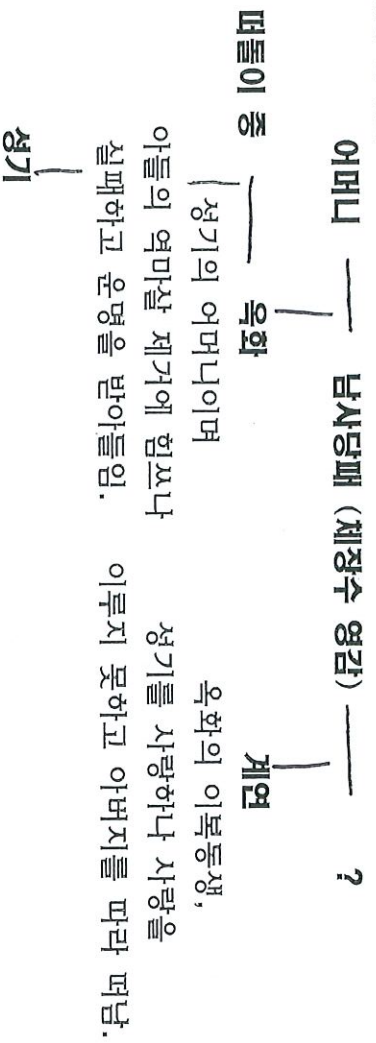
성기가 옛판을 때고 고향을 떠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이유

이루지 못한 애정에서 오는 내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암시하고,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인간적 고뇌와 갈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작가의 주제의식이 표출된 것.

세 갈래 길의 의미

화갯골로 난 길	구례로 난 길	하동으로 난 길
지금까지 성기가 살았던 곳이며 성기에게는 과거의 삶 을 의미함.	계연이 떠나간 길이며 따라서 성기에게는 운명을 거역하는 삶 을 의미함.	성기가 옛장수가 되어 떠나는 길이며 운명에 순응하는 삶 , 즉 떠돌아다니며 사는 삶을 의미함.

(5) 인물 관계도



역마살을 타고난 운명적 인물,
계연을 만나 사랑을 느끼지만, 계연과의
사랑의 좌절로 역마살을 극복하지 못하고
팔자에 따라 고향을 떠남.

역마 - 김동리

작가: 김동리 - 한민족의 삶과 정서를 다룬, 리얼리즘 성향의 작품, 예술

갈래: 단편소설, 순수소설

성격: 무속적, 운명적, 토속적

배경: 전라도와 경상도의 접경인 화개장터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운명의 수용과 이를 통한 생의 의지 회복

<줄거리>

옥화는 떠돌이 중과 만나 아들 성기를 낳았는데, 역마살이 끼었다고 열 살 때부터 절에 보내어 그곳에서 지내게 한다. 성기는 장날이 되면 절에서 내려와 이야기책 장사를 한다. 장수 영감이 옥화가 운영하는 화개장터 주막에 딸 계연을 주막에 맡겨놓고 장사를 떠난다.

책 장사를 하러 온 성기는 계연을 만나 호감을 느끼고,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 간다. 마침내 체 장수가 다시 와 계연은 아버지를 따라 여수로 떠나고, 성기는 갑작스러운 이별에 충격을 받아 자리에 드러눕게 된다. 어느 봄날 옥화는 계연이 자신의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준다. 그 말은 둘은 성기는 차차 기운을 차리고 옥화와 작별하고, 옥자배기 가락을 부르면서 체 장수와 계연이 떠난 구레 쪽 길을 등지고 하동으로 떠난다.

<인물 관계도>

옥화- 화개장터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평범한 중년 여성, 아들 성기의 역마살을 치료해주려고 함

성기- 옥화와 떠돌이 승려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역마살을 타고났다. 계연을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갑작스럽게 이별 후 몸져눕는다. 사실을 알고 하동으로 떠난다.

계연- 체 장수와 함께 옥화네 주막에 온 인물. 성기와 사랑에 빠진다.

체 장수- 계연의 부. 역마사에 긴 인물로 옥화의 어머니와 관계한 일이 있음.

<작품 해석>

제목의 '역마'란 당시주(唐四柱)에서 얘기하는 역마살을 뜻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물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운명에 순응함으로써 구원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생명의 근본적인 운명을 탐구하려 했던 작가의 운명론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상징적 의미>

쌍계사- 토속적 삶 속에서의 정착의 공간

화개 장터: 전통 사회에서 떠돌이 삶을 상징하는 공간

세 갈래의 길: 헤어짐과 유량의 운명

-화갯골로 난 길: 과거의 삶 의미

-구례로 난 길: 운명을 거역하는 삶 의미

-하동으로 난 길- 운명에 순응하는 삶 의미

* 역마 - 김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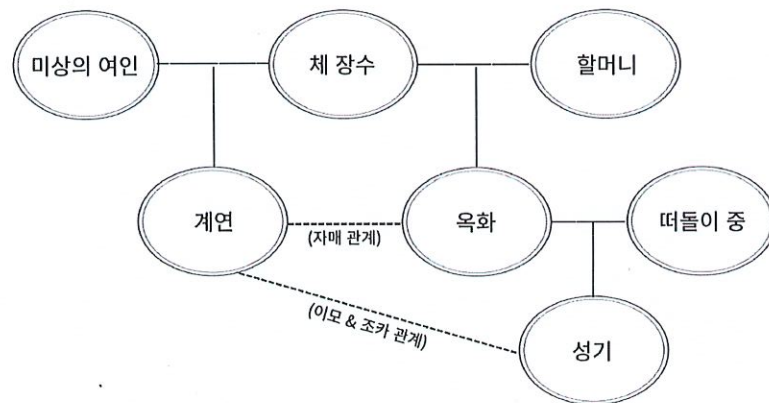
- 2016년 고3 4월, 2016년 고1 6월 모의고사 출제 지문

갈래	단편소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공간적 배경: 화개장터(전라도와 경상도 경계 지역에 위치)
성격	운명론적, 무속적
구성	단순 구성, 입체적 구성

- 특징

- ① '역마살'이라는 한국적 소재 활용 (한국적 운명관)
- ② '화개 장터' (= 토속적 = 향토적 공간)
- ③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혼용
- ④ 배경 묘사, 행동 묘사

- 인물관계도



-옥화: 주막집 주인, 성기의 모

-체 장수: 계연의 부, 역마살이 낀 인물, 36년 전 옥화와 관계를 한 인물

-성기: 화개장터 주막집 옥화의 아들, 역마살을 타고난 운명적 인물, 정적인 인물, 계연과 사랑에 빠진 인물

-계연: 체 장수의 딸, 옥화의 이복동생, 성기와 사랑에 빠진 인물

* 역마살: '역마'와 '살'의 합성어, 한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길 위를 떠도는 삶

- 줄거리

발단	옥화는 아들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려 노력, 체 장수의 영감이 딸 계연을 옥 화에게 맡기고 장사를 떠남.
전개	성기와 계연은 서로 사랑하게 됨.
위기	옥화가 계연의 왼쪽 귓바퀴의 사마귀를 발견하고 자기 동생일 수도 있겠다고 의심함.
절정	계연이 성기의 이복이모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둘의 사랑은 운명적으로 좌절 됨.
결말	성기는 중병을 앓고 병이 낫자 운명에 순응해 길을 떠남.

- 주제: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통한 인간의 구원

* '화개 장터'의 순환성:

- '화개' = 꽃이 열린다(핀다) = 애정이 무르익는 것

- ① 체 장수와 ~~옥화~~의 하룻밤 사랑
- ② 옥화와 떠돌이 중의 사랑
- ③ 성기와 계연의 사랑

* '삼거리 길'의 상징적 의미:

- '삼거리 길' (= 이별하는 장소 = 선택의 갈림길에 선 장소)

- ① 화개골: 과거의 삶
- ② 구례: 계연이 떠나간 길, 운명을 거스르는 삶
- ③ 하동: 성기가 떠나기 위해 택한 길, 운명에 순응하는 길

역마 - 김동리

갈래 : 단편소설, 순수소설

성격 : 운명적, 토속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특징 : ① 역마살이라는 한국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한국적 운명관을 그림.

② 화제장터라는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함.

③ 인간과 운명의 갈등이 두드러짐.

주제 : 운명의 순응하는 삶 (한국적 운명관)

<제목의 의미>

역마 : 조선시대 교통수단으로, 역참에 두고 쓰던 말

역마살 :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 다니게 되는 운명

<줄거리>

발단 • 화개 장터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옥화 아들 성기의 역마살을 잃어가고자 노력함

• 체 장수 영감이 딸 계연을 옥화에게 말기고 떠남.

전개 • 옥화는 계연을 성기와 맺어 주어 성기가 역마살을 극복하고 정착하기를 바람.

• 성기와 계연이 서로 사랑하게 됨

위기 • 옥화가 계연의 왼쪽 뒷바퀴 위에 있는 사마귀를 발견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의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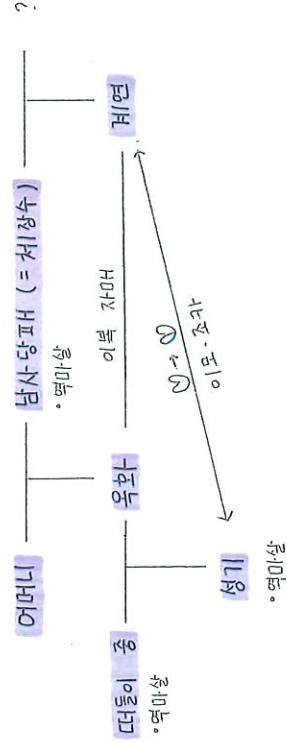
결정 • 돌아온 체 장수 영감과 이야기를 나눈 옥화는 계연이 자신의 이복동생임을 알게 됨.

• 성기와 계연은 영관도 모른 채 이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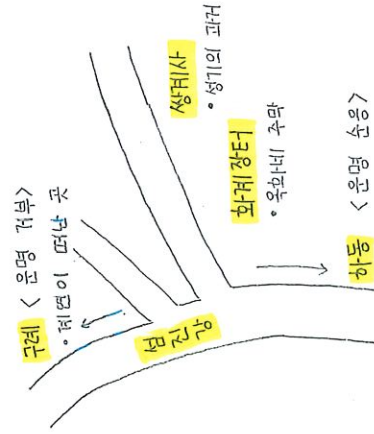
결말 • 계연이 떠난 뒤 성기가 영관이 누운

• 옥화로부터 이별 이유를 듣게 된 성기가 건강을 회복하고 역마살에 순응하여 살게 됨

<인물 관계도>



<배경>



• 화제장터

성기의 할머니와 남사당패 정을 통해서 옥화를 갖게 된 장소

옥화가 떠돌이 종과 인연을 맺어 성기를 낳게 된 장소

성기와 계연이 깊은 인연을 맺은 장소

→ 인물들이 우연적이고 일회적인 만남과 그 만남에 의한 중대적인 변화를 대를 이어 반복적으로 겪는 운명적 공간

많은 사람들이 거행되어 있어 서로 만나기도 헤어 지기도 하는 장소
이곳에서 가지는 인간 관계는 지속적으로 보다 일시적인

→ 인물들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함을 암시하는 역할

